

축 사

존경하는 고승대덕 큰 스님들과 내외 귀빈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불교지도자 여러분!

이번 스리랑카에서 열리는 제25차 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불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위하여 노력하신 세계불교도우의회 Phan Wannamethee회장님과 스리랑카 대회조직위원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WFB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이곳 스리랑카에서 다시 모여 창립의지를 되새기면서 행사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이곳에 모이는 우리들의 마음은 가뭄과 장마, 태풍의 모진 시련 속에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부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WFB의 교류활동과 세계평화운동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WFB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세계불교도우의회는 1950년 처음 이곳 스리랑카에서 시작해 불교인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포교해 오면서 인류평화와 화합에 기여해 왔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합을 추구해왔으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주제로 행사가 열리면서 지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모여 남북대화의 통로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불교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작금의 사회에는 아직도 국가 간의 전쟁과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화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밝아질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만물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도

존엄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불교의 중심사상인 緣起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하면서 대승적으로 화합하는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촌 곳곳에 부처님의 화해의 가르침을 전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갈등을 불교의 진리 안에서 해소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합시다.

끝으로, 스리랑카 대회가 원만히 회향되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WFB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 2554(2010)년 11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